
서울지역 2/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

박희석 연구위원 · hspark@sdi.re.kr

한진아 연구원 · cycle13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서울경제분석팀

I. 서울지역 2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

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다소 주춤

- 2011년 2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91.3으로 2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하회
 - 서울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1년 1/4분기 92.2보다 0.9p 하락
 - 2010년 평균 99.7을 기록한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0년 4/4분기 101.0으로 정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여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
 - 그러나 2011년 2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전분기 하락폭 8.8p보다 미미한 수준인 0.9p에 그쳐 향후 체감경기는 전분기 수준 유지



[그림 1]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-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분기 대비 하락
 - 2011년 2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분기 대비 1.1p 하락한 89.7을 나타내고 있고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2.5p 하락한 106.2를 기록
 - 2010년 2/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최근 2분기 연속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
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1분기 이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



[그림 2]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- 2011년 2/4분기 서울의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1/4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으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하락
- 서울의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68.0으로 전분기대비 1.1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서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
- 2011년 2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2011년 1/4분기 대비 3.1p 하락한 98.4를 기록하고 있어 다음분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

[그림 3]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소비지출지수 역시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하락

- 서울의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가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
- 2011년 2/4분기 서울의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전분기 대비 0.8p 하락한 94.2,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99.8로 전분기 대비 보합
 -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와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모두 2010년 4분기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하락 또는 횡보로 큰 폭의 소비지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 - 품목별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조사 결과 ‘교육/문화비(118.2)’, ‘교통/통신비(103.5)’, ‘주거비’(102.2)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
 - ‘교육/문화비’, ‘교통/통신비’등 주요 품목의 소비지출 전망이 1/4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‘식료품비’ 지출전망은 상승



[그림 4]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○ 서울시 가계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고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

- 2011년 2/4분기 서울의 「순자산지수」는 101.1로 2011년 1/4분기보다 0.7p 하락하고,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도 전분기보다 3.4p 하락한 97.2로 조사
- 2010년 꾸준히 기준치(100)를 상회하던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가 다시 기준치를 하회하여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불안감 반영
- 「물가예상지수」는 2011년 1/4분기보다 4.0p 하락한 150.5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준치(100)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



[그림 6] 서울의 고용전망, 물가예상지수

II. 서울지역 2/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

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및 경기전망 서서히 회복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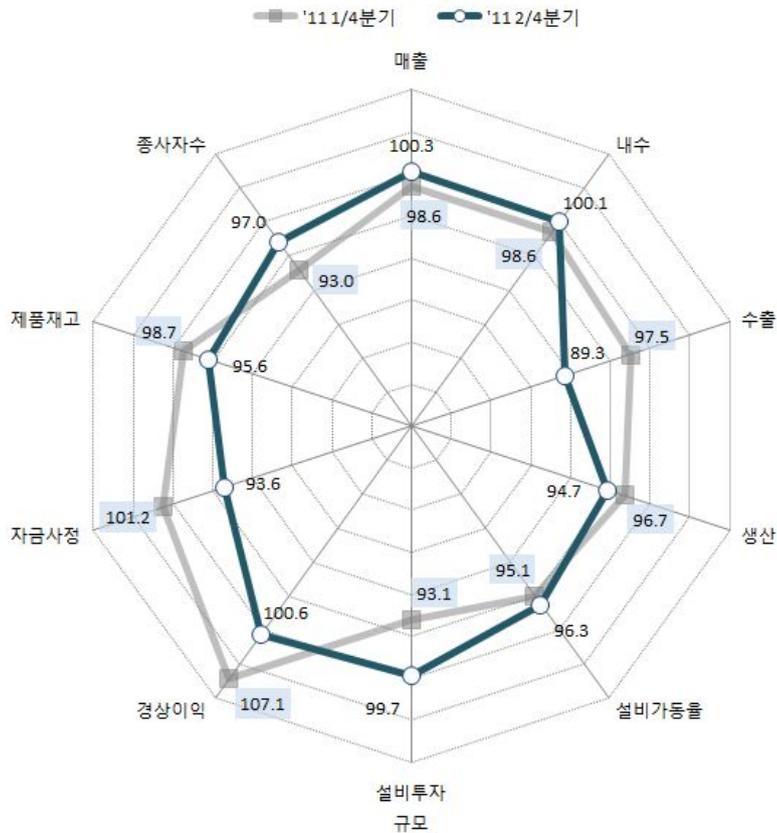
- 2011년 2/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, 경기회복 기대감 역시 다소 개선
 - 서울의 2011년 2/4분기 「업황실적지수」는 94.6으로 전분기보다 0.1p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1/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
 -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「업황전망지수」는 3/4분기 97.9로 전망됨에 따라 2/4분기 보다 0.2p 상승할 것으로 조사
- 「업황실적지수」와 「업황전망지수」 모두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하여 기업 부문의 체감 경기 및 전망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



[그림 7] 서울의 업황지수

○ 서울소재 기업은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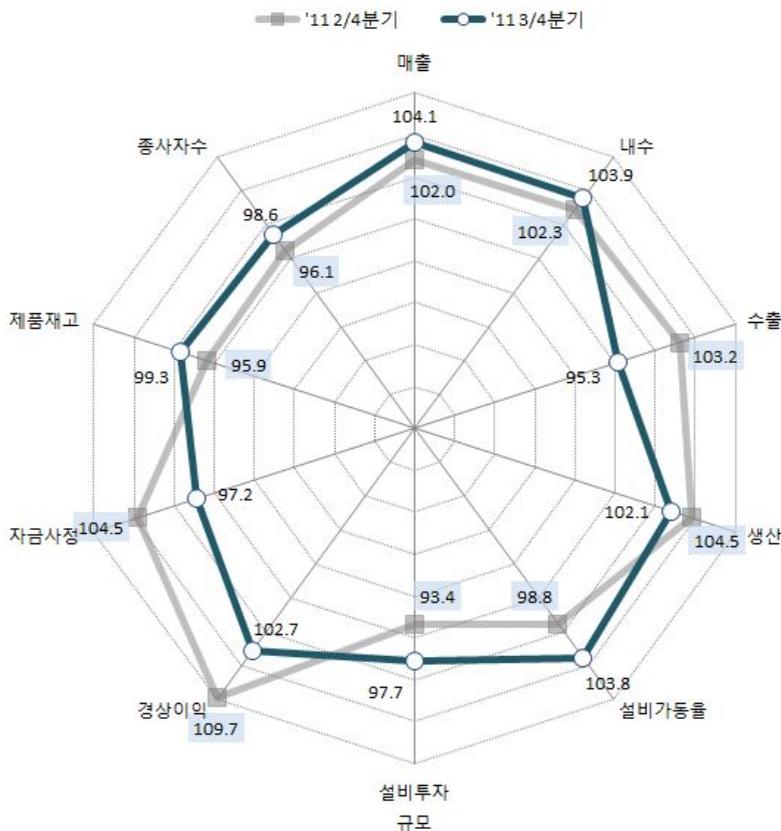
- 「매출실적지수」는 2011년 1/4분기 대비 1.7p 증가한 100.3을 기록
 - 내수부분의 실적지수는 100.1로 전분기대비 1.5p 증가하고 설비가동율은 전분기대비 0.9p 증가한 96.3으로 외형적인 경영실적은 개선
- 반면 경상이익, 자금사정 등은 전분기대비 각각 6.5p, 7.6p 하락한 100.6, 93.6으로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



[그림 10]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

○ 서울소재 기업은 2011년 3/4분기에 매출, 내수, 설비가동률 등에서 기업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금사정은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

- 「매출전망지수」는 2011년 2/4분기 대비 2.1p 증가한 104.1을 기록
 - 내수부문의 전망지수는 103.9로 전분기대비 1.6p 증가하고 설비가동율은 전분기대비 5.0p 증가한 103.8로 외형적인 경영은 개선 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경상이익, 자금사정의 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7.0p, 7.3p 하락한 102.7, 97.2로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



[그림 11]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